

# 七情의 生成에 대한 東西醫學的 考察

宋昊哲 · 金東熙\* · 金聖勳\*\*

## Astract

### A study on the generation of seven-emotion in the east-west medicine

Song Ho-chul O.M.D, Kim Dong-hee O.M.D., Ph. D, Kim Sung-hoon O.M.D., Ph. D.  
Dept. of Oriental Medicine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aejon University, Taejon, Korea.

1. The emotion is given before birth, and because of not perfect of human being's consciseness, individual differance exist.
2. Every emotion act first on the heart and following other organ which possess each of the five emotion. Therefore the heart plays impartant role on the emotion and emerge five organ in the oriental medicine theory.
3. The emotion was expressed by external reagent, but the more importante reagent is internal situation such as qi(氣), xie(血), yin(陰), yang(陽), according to these reagent the existing time and strength is different.
4. The emotion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weak-strong and big-small of zang-fu(臟腑), and the size of zang-fu(臟腑) is determined by emotional specificity in the si-xiang medicinal (四象醫學)theory.

## I. 緒 論

七情은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의 七種 情志를 말한다. 인간이 느끼는 느낌은 대단히 複雜하고 多元化된 情志로서<sup>1)</sup>, 몇가지 基本 情緒를 基礎에 다 두고 萬千種의 情緒的 變化를 形成할 수 있으며, 多樣한 複合形式으로 나타난다<sup>2)</sup>. 韓醫學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頻發되며 또 具體的인 感情들을

七情이라 稱하고 있다. 이 七情은 各家들마다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儒家에서는 “喜, 怒, 哀, 懼, 愛, 惡, 慾”이라고 하며, 佛家에서는 “喜, 怒, 憂, 懼, 愛, 憎, 慾”이라고 한다. 現在에 어떤 心理學家에서는 基本情緒를 喜悅, 憤怒, 恐懼, 悲哀의 四種으로 概括하였다<sup>3)</sup>.

원래 <內經>에서는 情緒를 “怒·喜·思·憂·恐”의 五種으로 구분하였고, 五臟이 主導하여 “五臟情志”라 하며, 簡稱하여 “五志”라 하였고<sup>4)</sup>, <素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 慶熙大學校 東西醫學大學院 韓方腫瘍學敎室

1) 嚴泰植 : 七情傷에 對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제5권 제1호, p145,

2) 王克權 : 中醫神主學說, p. 5

3) 王克權, 上揭書, p.5

4) 洪元植 : 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出版社, p.19  
五志란 5가지 志이다. <素問·五運行大論> “心在志爲喜, 肝在志爲怒, 脾在志爲思, 肺在志爲憂, 腎

問·學痛論》에 “九氣”라 하여 情志가 氣機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言及하였는데<sup>5)</sup>, 《內經》의 五志說과 九氣說은 後世醫家들이 情志病變과 辨證論治를 研究하는 것에 理論基礎를 세웠고, 《難經》에서는 悲와 驚을 각각 肺와 腎에 配屬하였다. 이후 宋의 陳無擇은 《三因極·病證方論》에서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의 7가지 情志를 명확하게 “七情”이라고 하였다.

生命現狀은 機體生存을 維持하기 위하여 반드시 進行되어야하는 物質, 에너지代謝등의 基本的인 生理活動뿐만 아니라 더 高級的이며 더 複雜한 心理活動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精神, 情緒狀態와 疾病의 發生, 發展의 密接한 關係는 최근 醫學界의 注目을 받고 있는데, 특히 精神 狀態와 腫瘍, 高血壓 및 心臟病 등의 疾患과의 關係가 매우 밀접하다고 한다<sup>6)</sup>. 韓醫學은 古來로부터 人體가 形神合一의 特徵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소위 形은 人體의 物質의 構造를 가리키고, 神은 人間의 精神, 情志와 心理活動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體系에 대해 系統的이고 綜合的으로 說明하고 있다<sup>7)</sup>.

現在 七情에 관한 研究는 金<sup>8)</sup>이 情志의 生理病理에 대한 考察을, 孫<sup>9)</sup>이 脾胃와 神志의 相關性에 대한 研究를 하였으며, 朴<sup>10)</sup>은 脾胃와 七情의 相關性을 考察하였고, stress에 대해서는 文<sup>11)</sup>이 文獻의 考察을 文, 金, 金, 張, 宋등이 實驗의 研究

를 하였다. 그리고 七神에 대한 研究와 七情의 病理에 대해 素問을 비롯한 醫書의 內容을 정리한 書籍과 論文은 있지만 七情에 生成에 대한 具體的인 研究는 아직 되어있지 않다. 著者는 七情의 生成에 대하여 韓醫學과 洋醫學 그리고 心理學的으로 考察하여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및 總括

### 1. 認識과 情緒

情이란 事物에 感觸되어 일어나는 마음의 作用으로 性情이라 보통 일컬으며, 禮記에는 “喜怒哀懼愛惡慾 七者不學而能”이라 하여 先天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性이란 사람의 性品 또는 萬物의 本性으로 이해되는데 사람이 타고난 性質, 萬物이 가지고 있는 본바탕이라 한다<sup>12)</sup>. 人間을 흔히 感情의 動物이라고 하는데, 人間의 精神의인 面을 感情, 理性으로 나누어 感情은 動物的인 本能의 範疇로 理解하고, 理性은 理致를 따라 實踐하려는 것으로 人間의 지향할 바로 인식하고 있다.

人間은 항상 慾求가 있으며, 그 慾求가 만족될 때는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며, 욕구가 만족되지 못할 때는 憂鬱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또 자신의 뜻에 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화를 낸다. 어두운 밤에 홀로 길을 가거나 높은 산, 깊은 물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感情의 生成은 어떤 動機나 刺戟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고, 어떠한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이는 인간 뿐만 아니라 動物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生命體에 共通的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통분모라 할수 있다. 그런데 認識의 구체적인 反應樣態와 強度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는 主觀的인 要素이다.

〈表1〉 一次情緒와 그 原因들<sup>13)</sup>

12) : 漢韓大字典, p.484,494

13) 8개의 일차정서들과 이것들과 관련된 상황들 (Plutchik, 1980에 의거함, 심리학 개론, 홍대식, p483에서 재인용)

在志爲恐.”

5) 九氣 : 情志를 주된 9가지 病因病機로 삼아 人體에 대한 氣機의 影響을 이야기 함 《素問·學痛論》“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靈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6) 全國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篇 : 東醫病理學, p.206

7) 全國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篇 : 上揭書, p.206

8) 金基永 : 정지의 생리병리적 고찰, 원광한의대 논문집 제2호, p.121

9) 孫迎節 : 脾胃與神志의 生理病理關係探赜, 요령중의학잡지, pp.1-3, 1988.

10) 朴淑英 외 : 脾胃와 七情에 관한 文獻의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vol.13, no.1, p.140

11) 文流模 : stress에 대한 동서의학적 고찰, 대전대학논문집IV, 2:301-305, 1987.

| 정 서    | 상 황          |
|--------|--------------|
| 비애(슬픔) |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
| 공포     | 위협           |
| 분노     | 방해           |
| 즐거움    | 잠재적 이성       |
| 신뢰     | 집단멤버         |
| 혐오     | 섬뜩한 대상       |
| 예상     | 새로운 영토       |
| 경악     | 감작스러운 새로운 대상 |

〈表2〉 一次의 상황추진들과 그 결과들<sup>14)</sup>

| 상 황               | 정 서 |
|-------------------|-----|
| 바람직스럽고 일어남        | 즐거움 |
| 바람직스럽고 일어나지 않음    | 슬픔  |
| 바람직스럽지 않고 일어남     | 고통  |
| 바람직스럽지 않고 일어나지 않음 | 안심  |

위의 〈表1〉 〈表2〉에서 보듯이 어떠한 狀況의 發生에서 情緒의 生成은 인간에 있어서 거의 같은데 情緒의 發生에는 반드시 認知的 評價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떤 思想이나 行動을 經驗할 때 우리는 그 狀況을 우리의 개인적 目標들과 安寧의 면에서 해석한다. 이 평가의 결과는 肯定的이거나 否定的인 하나의 認知나 信念이다<sup>15)</sup>. 이러한 해석을 認知的 評價(cognitive appraisal)라 하는데 이는 두 개의 구별되는 부분들, 즉 評價過程과 그 結果로서 일어나는 信念을 갖고 있다.

韓醫學 古典上の 內容을 볼 때 “恬憺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의 內容으로 볼 때 慾心을 적게 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精神을 스스로 지키면 病이 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곧 外的인 刺戟에 대한 反應에 情緒적으로 安定되어 있어 별다른 동요가 없다는 것이다. 嚴은 七情은 正常範圍로 유지되는 生理的 폭이 있으며, 그 變化의 농도가 薄할수록 生理的이고 건강상태라고 하였다<sup>16)</sup>.

感情이란 곧 外界에 대한 認識이므로 主觀과 客觀, 認識이라는 잣대에 대한 概念의 定立이 必要하다. 東洋學에서는 인식너머에 實在의 存在가 있으며 이것은 사람의 認識이나 人性으로 認識이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老子는 眞理의 世界가 感覺너머에 存在하고 있으며, 有가 無에서 生成되며, 超可知的 實體를 ‘玄’이라 하였다<sup>17)</sup>. 엄<sup>18)</sup>은 이 ‘玄’에 대해 感覺 機能의 世界(有)와 感覺 너머의 世界를 모두 包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感覺이라는 認知的 水準의 감(感)은 ‘함께하다(參)’는 뜻이 있으며, 둘이 아니라는 것으로 마음(心)을 하나로 한다는 意味가 된다<sup>19)</sup>. 이 마음이 곧 情으로 表現되어 질 수 있으며, 이 情이라는 것은 사람의 本性에서 우러나는 것이고<sup>20)</sup>, 배움이 없이도 行할수 있는 先天의인 것이고<sup>21)</sup>, 萬物에 存在하는 것이다<sup>22)</sup>. 《周易·卦辭傳》에서는 ‘易’은 사람이 닿지 못하는 바로 思維가 아닌 理致와 통하는 것이 宇宙라고 하여 思維는 人性의 部分이라 하였다<sup>23)</sup>. 思란 仲裁하고 調整하는 智慧로서 人間이기 때문에 必要하여 存在하는 것으로 人間은 많은 存在들과 關係를 가지므로 그 中央에 思가 位置하여 仲裁할 必要性이 있게 된다<sup>24)</sup>. 《禮記》의 樂記에서는 禮儀란 각자의 本分을 區分하는 것이고, 音樂이란 사람의 마음을 합하는 것으로, 같이 된즉 親하게 되고, 區分이 된즉 서로 恭敬하게 된다<sup>25)</sup>고 하였고, 이 禮樂을 作하는 이를 聖人<sup>26)</sup>이라 하

이로 보아 七情의 生理的 幅은 매우 좁으며 그 농도도 또한 薄할수록 生理狀態에 가깝다.

17)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

18) 엄영용 : 老子, 삼성출판사, p.29

19) 正中形意義綜合大字典, p.537 感

20) 六書故, 發於本性謂之情

21) 《禮記》禮運 : 同謂人情, 喜怒哀懼愛惡慾 七情弗學而能

22) 악학개범 서문, 物生有情, 情發爲音

23) 易無思也, 無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如此?

24) 이 思가 七情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일견 思란 感情과는 關係없는 듯하나 認識의 側面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韓醫學에서 七情에 넣은 것 같다.

25) 樂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26) 禮記 樂記 故知禮樂之情者能作, 識禮樂之文者

14) 두 개의 상황적 추진들의 조합들과 이것들에 연관된 정서들(Roseman, 1979에 의거함)

15) “나는 게임에 이겼고 행복을 느낀다” 또는 “나는 시험을 망쳤고 우울한 것을 느낀다”

16) 嚴泰植 : 上揭書, p.145.

適當限度の 七情發動은 五行 中 相生作用을 促進시키며, 해당 臟腑에 良性刺戟으로 作用될수 있다. “恬憺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라 하여 無病과 長壽의 狀態에 대해 言及하였는데

였다<sup>27)</sup>.

만약 良好한 心身의 소질과 自體調節 能力을 培養하고, 不良한 感情 狀態를 克服하고, 精神의 調節에 注意하고, 心理的으로 安定, 淸淨되고 貪慾과 妄想을 없애면 眞氣가 順調롭고 精神이 內守하게 된다<sup>28)</sup>. 곧 이는 《素問·上古天眞論》의 聖人의 概念<sup>29)</sup>과 附合되는 것이라 할수 있다<sup>30)</sup>.

2. 情緒와 心神의 關係

韓醫學에서 情志에 대한 言及은 《素問》의 “學痛論”、“陰陽應象大論”、“玉機眞藏論”、“宣明五氣論”과 《靈樞》“本神” 篇등에 記載되어 있다.

情志活動은 人類의 正常的인 生理現象에 속하며, 一定한 基礎的인 生理를 두고 있다. 東洋醫學에서는 情志活動과 臟腑機能사이에는 密切한 相關關係가 있다고 認識하였는데, 그 思想的 基礎는 “人與天地相應”로 天과 人間을 比喻하여 설명하면, 情志活動은 臟腑로 인해 生産되는 것이며, 情志의 變化는 臟腑機能活動의 表現形式 중의 하나라고 闡明하였다<sup>31)</sup>.

또한 《內經》에서는 서로 다른 性質의 情志變

化를 認識하여, 分別하고 이것을 五臟과 어떤 特殊한 關係로 聯系지어, “五行學說”을 利用하여 “肝在志爲怒 心在志爲喜 脾在志爲思 肺在志爲憂 腎在志爲恐”등으로 歸納시켰다<sup>32)</sup>.

韓醫學에서 五臟은 人體 生命活動의 中心으로 《內經》에서는 人體의 복잡한 生命活動 現狀을 모두 臟腑의 機能反映으로 認識하였다. 또한 이러한 生命活動은 五臟을 중심으로 六腑, 奇恒之腑와 組織, 器官의 密接한 關係를 형성하여, 五個의 機能活動系統인 五臟系統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를 藏象이라고 하며<sup>33)</sup>, 臟腑와 神, 精·氣·血·津液 및 經絡系統을 포괄한다.

五臟系統은 五行配屬을 통하여 心, 肝, 脾, 肺, 腎이 중심이 되고 經絡系統을 통하여 六腑, 肢節, 筋骨, 皮肉, 官竅 등을 聯繫하였다. 五臟을 中心으로 한 一系列의 機能系는 生理·病理方面에 있어서 相互影響을 미치고 內在한 臟腑의 生理機能과 病理變化는 그와 관련된 機能發顯系를 통하여 外部로 반영되므로 이는 臟腑의 機能變化를 推論하는 根據가 된다<sup>34)</sup>.

〈表3〉 五臟 機能系

|     | 臟 | 腑  | 體  | 官 | 華 | 藏 | 神 | 情志 |
|-----|---|----|----|---|---|---|---|----|
| 心系統 | 心 | 小腸 | 血脈 | 舌 | 面 | 脈 | 神 | 喜  |
| 肺系統 | 肺 | 大腸 | 皮  | 鼻 | 毛 | 氣 | 魄 | 悲  |
| 脾系統 | 脾 | 胃  | 肉  | 口 | 脣 | 營 | 思 | 思意 |
| 肝系統 | 肝 | 膽  | 筋  | 目 | 爪 | 血 | 魂 | 怒  |
| 腎系統 | 腎 | 膀胱 | 骨  | 耳 | 髮 | 精 | 精 | 恐驚 |

人類의 複雜한 情志活動은 統一된 基礎生理와 基礎物質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表3〉과 같이 五行學說에서 說明이 되고 있으며<sup>35)</sup>, 五臟으로 情

能述. 作者之謂聖, 述者之謂明. 明聖者述作之謂也.

27) 주13부터 19, 주 20은 李의 ‘氣味論의 理解를 위한 認識論的 考察’에서 部分的으로 引用되었음

28) 全國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上揭書, p.207

29) 素問 上古天眞論

“...其次 有聖人者 處天地之和 從八風之理 適嗜欲於世俗之間 無嗔恚之心 行不欲離於世 被服章舉 不欲觀於俗 外不勞形於事 內無思想之患 以恬愉爲務 以自得爲功 形體不敝 精神不散 亦可以百數.”

30) 이는 결국 사람의 指向할 바로 생각된다. 韓醫學에서는 결국 養生을 하여 疾病을 豫防하라는 것인데, 이는 精神의 狀態, 起居등이 節度가 있어 無病하고 장수한다는 것이다.

《素問·上古天眞論》“岐伯 對曰上古之人 其知道者 法於陰陽 和於術數 飲食 有節 起居有常 不妄作老 故 能形與神 俱而盡終其天年 度百歲乃去 今時之人 不然也 以酒爲漿 以妄爲常 醉以入房 以欲竭其精 以耗散其眞 不知持滿 不時御神 務快其心 逆於生樂 起居無節 故 半百而衰也 夫上古聖人之教下也 皆謂之虛邪賊風 避之有時 恬憺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 風者 百病之長 生之賊也”

31) 《素問·陰陽應象大論》에 “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臟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라 했고, 《類經》의 注에서는 : “五氣者, 五臟之氣也, 由五氣以生五志”

32) 王克權, 上揭書,

《內經》還認識到不同性質的情志變化, 分別與五臟有着某些特殊的聯系, 并在長期實踐的基礎上, 用“五行學說”將其歸納爲“肝在志爲怒 心在志爲喜 脾在志爲思 肺在志爲憂 腎在志爲恐”

33) 臟象은 《素問·六節藏象論》에서 “臟象何如”라 하여 처음으로 言及하였다. 이에 대하여 張景岳은 “象은 形象이다. 藏은 體內에 존재하며 그形象은 밖으로 드러나므로 臟象이라 한다.”고 注하였다. ‘藏’은 體內에 있는 臟腑를 말하며 ‘象’은 內臟이 表現하는 징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象’은 臟의 外部 반영이며 ‘臟’은 象의 內部本質이다.

34) 東國大 臟腑生理 講義錄, pp.7-8

35) 조현영은 情緒의 作用으로 드러나는 색으로

志가 分類되어 있으므로 精神刺戟因子도 五臟에 各各 影響을 미쳐 怒傷肝, 喜傷心, 思傷脾, 悲傷肺, 恐傷腎 등의 病症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臟腑氣血에 對한 情志變動의 影響은 精神刺戟因자의 質과 量에 의해 決定되지만, 더욱 重要한 것은 “心神”의 狀態에 의해 決定된다. “心神”이란 精神活動과 臟腑機能의 둘 사이에 있어서의 調節能力을 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心神”이 둘 사이의 關係에 協調的이면 臟腑氣血의 變動은 暫時的이고 可逆的으로 生理的인 것으로 現代醫學心理學에서는 이것을 “心理生理反應”이라고 말한다. “心神”이 둘 사이의 關係에 非協調的이면 이러한 變化는 持續的이고 不可逆的으로 病理的인 것으로 “心身疾病”이 發生된다<sup>36)</sup>.

“心神”은 喜로 인해 動할 뿐만 아니라, 其他 性質의 精神刺激도 또한 모두 心에 먼저 作用한다. 즉 五臟情志의 作用은, 먼저 心이 作用하고 各 臟腑의 作用이 따른다는 것인데 이는 心이 神을 藏하고 “五臟六腑之大主”로서 “心神”은 五臟情志活動을 主導하기 때문이다<sup>37)</sup>. 또 《內經》에 “憂思

傷心” (《靈樞·百病始生》) 〇 “悲哀愁憂則心動” (《靈樞·口問》), “心怵惕思慮則傷神” (《靈樞·本神》)等 이라 하여 諸 情緒에 心神이 關聯됨을 言及하였다. 곧 情志活動은 “心神”이 主導하는 相互協調的 臟腑機能活動인 것이다<sup>38)</sup>.

이러한 “心神” 中心의 情志觀에 대해 邱는 五臟이 藏精化氣하여 生神하므로 神이 外界의 刺戟을 받아 情을 生成하고 神은 內에서 活動하고 情은 外部로 表現되어 이와 같은 과정으로 情志活動이 생산된다고 하였고<sup>39)40)</sup>, 心の 志意에 대해 《靈樞·本藏》에서 “志意者 所以御精神, 守魂魄, 适寒溫, 和喜怒者也”라 하여 “志意”의 作用이 精神을 다스리고, 魂魄을 安定하게 하고 機體의 寒溫 등의 外部環境變化에 適應하고, 喜怒 등 情志活動을 調節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sup>41)</sup>.

宋은 七情을 깨달아서 神明을 通하게 하는 本質

여긴다. 心を “君主之官”, “神明出焉”,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이라 하여 “心神”의 主宰下에 생명활동이 規則的이고 協調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心神”은 人體生命活動을 主宰하기 때문에,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靈樞·邪客篇》)라고 하였다.

38) 王克權, 中醫神主學說,

“心神” 不僅因喜而動, 其他性質의 精神刺激도 都 首先作用于心 〇 故 《內經》又曰: “憂思傷心” (《靈樞·百病始生》) 〇 “悲哀愁憂則心動” (《靈樞·口問》) 〇 “心怵惕思慮則傷神” (《靈樞·本神》)等 〇 這就爲人類複雜的情志活動, 提供了統一的生理基礎和物質基礎 〇 情志與內臟的聯系, 并非五臟——五志的機械對號, 情志活動是以“心神”爲主導的相互協調的臟腑機能活動 〇

39) 邱幸凡: 從《內經》看情志與人體健康和疾病的關係, 복건중의약, 82년 5월, p.12, 1982.

40) 五志를 自發的인 意識活動으로 理解한 사람도 있다.

宋은 “五志는 神의 不同한 表現樣式으로 나누면 五志가 되고 合하면 一神이 된다고 하고, 人體의 外界刺戟의 情志反應은 七情이며, 人體에 內在的으로 存在하는 意識活動으로 外部의 刺戟에 의 존하지 않는 것을 五志라고 한다”고 하였다. (宋鷺冰 外: 中醫病因病機學, 서울, 일중사, pp.277-278, 1983.)

41) 心の 情志活動의 生産과 調節의 主導作用은 《靈樞·本神》의 “所以任物者 謂之心”, 《素問·靈蘭秘傳論》의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과 《靈樞·邪客》의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를 바탕으로 心の 機能으로 “志意”가 表出된다.

이러한 것을 관련지었으며 또 感情을 表現함으로 상대의 反應을 誘導하는 作用을 한다고 하였다.

① 맹렬한 鬪爭은 강렬한 분노에서 오며 강렬한 분노는 안색을 청색으로 변하게 한다.

② 赤色과 환희: 얼굴의 赤色

(1) 환희성 흥조: 자기의 호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상대자의 환희감을 도발하며 상대자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활동을 하도록 한다.

(2) 수치성 흥조: 호의와 우러, 호의와 분개, 호의와 공포

(3) 정욕성 흥조: 상대자에게 호의를 표시하는 동시에 미려의 감을 주어 흥분을 유도하여 능동적 행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4) 발열성 흥조: 생리적 활동에 의하여 부수적 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대외적 필요는 알수 없다.

36) 王克權, 上揭書, p.

情志變動對臟腑氣血의 影響, 除決定于精神刺激因자의 質과 量以外, 更主要地是取決于“心神”의 狀態. 具體地說, 也就是“心神”對精神活動和臟腑機能二者之間的調節能力. 當“心神”能很好地協助這二者之間的關係時, 則臟腑氣血의 變動時暫時的、可逆的, 是生理性的, 現代醫學心理學稱之爲“心理生理反應”. 否則, 這些變化將成爲持續的、不可逆的、病理性的, 而發生“心身疾病”.

37) 韓醫學에서는 心이 神明을 主管하므로 心이 精神意識活動의 物質器官을 發生과 主司한다고

的作用이 心의 作用이며, 이 作用을 통해서 各臟腑가 主管하는 情緒가 發揮된다고 하였고<sup>42)</sup>, 趙는 感情으로 인한 生理的 變動을 느끼는 부위가 모두 心臟部位이며, 基本的으로 情緒活動의 強弱이 모두 心臟機能의 強弱과 關聯 있다고 하였고<sup>43)</sup>, 王<sup>44)</sup>은 五臟의 情志는 機體에 各種 精神刺激이 作用하여 “心神”의 調節작용을 통하여 五臟으로 하여금 分別하여 生産된 서로 다른 變動이라 하였고 《醫門法律》<sup>45)</sup>을 說을 引用하여 설명하였는데, 모두 七情의 作用에 있어 心臟이 關與하고 있으며 神이 바탕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喜는 情緒의 發顯에는 神의 作用과 그의 物質의 바탕인 精이 함께 작용한다고 하였다<sup>46)</sup>.

七情을 陰과 陽의 兩極性으로써 區分을 하는 見解가 있는데, 喜와 怒를 肯定과 否定의 情緒代表로 삼아서 즉 《素問·調經論》에서 提出한 “陰陽喜怒”의 說은 情緒兩極說의 總剛이라고 할 수 있다. 情緒의 強度에서 論하면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의 七情을 配列順序에 따라 論하면 強에서 弱의 순으로 “思”에 이르는 것이 倅이고, 다시 弱에서 強까지이다<sup>47)</sup>.

怒는 肝에 속하는 情緒인데, 肝은 鬪爭의 動力을 만들어 내는 內分泌 臟器로 생각되며, 플라톤은 사람의 性格을 네가지로 分類하는 가운데 침착하고도 果斷性있는, 鬪爭에 가장 적합한 性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膽汁性이라고 했다. 東洋에서도 ‘대담하다’ ‘담력이 세다’ ‘간이 크다’와 같은 表現으로 鬪爭의 動力이 담에서 생기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 猛烈한 鬪爭은 強렬한 忿怒에서 오며 強렬한 忿怒는 顏色을 靑色으로 變하게 한다<sup>48)</sup>. 사람이 怒하면 얼굴이 靑色이 되며, 얼굴의 靑色은 心臟의 活動이 徐緩한 까닭이요, 拍動을 徐緩하게 하는 것이 肝의 作用이다<sup>49)</sup>.

다른 感情이 모두 心에 관련되지만, 喜는 心에 속하여 心臟이 직접 作用한다. 기쁘면 血液循環이 旺盛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추운 줄을 모른다. 火(火)와 붉은 색이 心에 속하니, 그것에 따르는 기쁨의 感情도 心에 속한다. 웃음은 기쁨의 表現인데 血液循環이 旺盛한 사람은 웃음이 많다<sup>50)</sup>.

思의 작용은 仲裁, 調節하는 것으로, 五臟에서 잘 싸우는 것은 肝과 肺로서 金克木으로 만나면 싸우고 싸우면 한 쪽이 쓰러져야 싸움이 끝이 나므로, 脾는 中間에서 싸움을 말려서 평화롭게 만드므로 五臟이 무사해서 脾를 一名 黃庭老人이라고 하고, 脾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통하는 往來의 中央地로<sup>51)</sup> 싸움을 말리고 調整하는 데는 思慮와 知慧가 필요하다. 또 土는 五味를 생해서 萬物을 養하는 것이 主目的이므로 脾土는 五味로 五種의 津液을 만들어서 五臟을 養하는 것이 主目的이니 五種의 津液을 만드는 데에는 水火가 필요하고 五臟을 養함에는 知慧와 努力이 다 필요하므로 脾主思

42) 宋點植 撰：醫學輯要, p.140.

心이 血을 生하여 脈으로 輸送해서 各臟腑와 肌肉 筋骨 틈틈이 血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니 心君의 役割이고, 心이 神明의 집으로 七情이 각각 主하는 臟腑가 따로 있으나 이 七情을 깨달아서 神明을 通하게 하는 것은 心의 作用이다.

43) 趙憲泳：한방이야기, 學園社.p.96

精神作用을 心臟과 관련 시키는 것에 대해 心臟의 活動이 健全한 사람은 精神도 健全하고 心臟이 弱한 사람은 精神의 活動도 부진하고, 感情으로 인한 生理的 變動을 느끼는 部位가 가슴, 곧 心臟의 部位로서 기쁨을 豫감할 때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悲痛한 일을 당하면 가슴이 쓰라리며, 恐怖를 느낄 때는 가슴이 선뜻하고, 失戀을 당한 후는 가슴에 못이 박혔다고 表現하는 것은 모두 感情의 反應이 느껴지는 곳이 心臟임을 가리킨다.

44) 王克權：上揭書.

五臟情志就是各種精神刺激作用于機體, 通過 “心神”的調節使五臟分別產生的不同變動

45) “故憂動于心則肺應; 思動于心則脾應; 怒動于心則腎應, 此所以五志唯心所使也.”

46) 宋點植：上揭書, p.388

精이 心으로 들어가서 心과 并合하면 喜가 되고, 肺로 들어가서 肺와 并合하면 悲가 되고 肝으로 들어가서 肝과 并合이 되면 憂가 되고, 脾로 들어가서 脾와 并合이 되면 畏가 되고 腎으로 들어가서 腎과 并合하면 恐이 된다.

47) 多家病理 번역물

48) 趙憲泳, 上揭書, p.104

49) 怒, 喜, 思, 憂, 恐 各情志에 대한 觀察을 통해 情緒를 五臟에 所屬시켜 說明한 內容은 주로 趙憲泳의 한방이야기, 通俗韓醫學原論에서 引用하였다.

50) 趙憲泳：上揭書, p.135 .

51) 宋點植, 上揭書, p.144

로 모든 考案이 足太陰에서 나온다<sup>52)</sup>.

지나친 思慮를 하게 되면 消化力이 減退하고 얼굴이 노래진다. 사색을 깊이 하는 사람은 대개 消化不良症이 있고, 얼굴이 누렇게 되며<sup>53)</sup>, 朴은 스트레스에 의하여 發生하는 소화기 계통질환의 病理的 機轉은 감정적 stress가 腦下垂體에 작용하여서 自律神經失調를 招來한 것이라고 思慮되며, 이는 精神的인 要因으로 脾氣鬱結하여 運化作用이 失調되어서 나타나는 氣留不行과 비교할수 있다고 하였다<sup>54)</sup>.

憂가 肺에 屬한다는 것은 사람이 애를 쓸 때는 누구든지 한숨이 저절로 나오며, 속담에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쉬고 있더라' 하는 것은 애를 매우 쓰고 있더라고 하는 뜻이다. 憂慮를 몹시 하면 얼굴이 하얘진다. 白色 太息이 모두 肺에 屬하고, 肺가 약한 사람은 까닭없이 애를 쓴다.

恐이 腎에 屬한다는 것은 恐怖를 느끼면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는데 흑색은 腎에 관계된 色으로 恐怖를 느끼면 行動과 모든 機關의 作用이 무저항적이며 消極的이 된다. 이것은 곧 陰의 作用이요, 陰은 腎에 屬한다. 또 매우 危急한 경우를 당하면 허리를 못쓴다. 그 부위는 腎經絡이고, 매우 恐怖를 느끼면 小便과 大便을 배출한다. 洋方의 括約筋의 작용이 모두 신에 속한다. 이러한 情緒別 生成은 《內經》, 《難經》을 비롯한 醫書의 內容을 모두 引用하여 考察하면 더욱 분명할 듯 하다.

### 3. 情緒를 일으키는 內部條件

情緒는 주로 外部 刺戟에 대한 個體의 反應이지만, 內部상황이 外部로 드러나는 것이다. 趙<sup>55)</sup>는 "感情은 生理的 變動의 對外的 表現이다. 아무리 怒할 만한 刺戟을 주더라도 怒할 만한 生理的 變動이 생기지 아니하면 怒의 感情은 表現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感情의 變化는 곧 生理的 變化요, 生理的 變化는 곧 感情의 變化다. 그런즉 그 感情의 發動으로써 그 肉體의 狀態를 규찰함이 또한 賢明한 方法이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健康診斷

에 感情을 重要視하는 所致이다."라고 하여 感情의 表出에 刺戟보다 生理的 變化를 더욱 重要視하였다.

人體의 臟腑氣血의 盛衰는 個體의 外部刺戟에 대한 敏感性, 耐受性 및 관련된 情緒狀態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sup>56)</sup>. 東醫寶鑑에서는 "肝實則兩脇下痛引少腹, 善怒. 肝虛則善恐, 如人將捕之",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등의 臟腑 氣의 虛實에 따른 情緒의 表出을 言及하였는데<sup>57)</sup>, 이는 外部의 刺戟의 性質보다도 個體의 內部條件이 情緒誘發에 더욱 重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個體의 內部條件은 神傷<sup>58)</sup>, 臟<sup>59)</sup>, 精<sup>60)</sup>, 氣<sup>61)</sup>, 血<sup>62)</sup>, 陰<sup>63)</sup>, 陽<sup>64)</sup>의 虧損

56) 全局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上揭書, p.207

57) 그리고 '脾病外證: 面黃, 善噁, 善思, 肺病外證: 悲愁不樂欲哭, 腎病外證: 面黑 善恐 數欠, 虛則... 清厥, 意不樂'이라 하여 外部로 잘 表출되는 情緒는 그에 該當되는 臟器의 病이라고 하였다.

58) 《醫方類聚·諸虛門》"神虛則心志顛倒", 《素問·調經論》"神有餘則笑不休, 神不足則悲"

59) 臟虛: 《素問·陰陽應象大論》"人有五臟, 化五氣, 以生喜, 怒, 思, 憂, 恐"라 하고 《靈樞·本神》에 "五臟皆小者, 少病, 若焦心, 大愁憂; 五臟皆大者, 緩于事, 難使以憂"라 하고 또 "心高則滿于肺中, 悅以善忘, 心下則臟外, 易傷于寒, 易恐以言"라 하여 五臟의 大小는 直接的으로 精氣의 貯藏과 情志의 變化와 관계있다고 하였다.

60) 精은 神志의 生成物質이고 神은 精氣로 말미암아 反映된다.

《素問·宣明五氣篇》"精氣并于心則喜, 并于肺則悲, 并于肝則憂, 并于脾則畏, 并于腎則恐"

61) 氣는 神의 生成物質로 직접 情志의 生成과 情志變化에 관계한다.

心氣不足, 心神失藏은 神志恍惚하고 悲傷하며, 心氣實하면 神氣內動하여 無故喜笑한다. 肝氣不足하면 肝魂失藏하여 疲勞乏力하고 善驚易恐한다. 肝氣實하면 肝氣內動하여 肝魂不寧하고 躁急易怒한다.

62) 《素問·調經論》"血有餘則怒, 不足則恐"

63) 陰液이 神府를 營養하면 情志가 平衡된다. (《素問·生氣通天論》"陰平陽秘, 精神乃治")

陰氣가 盛하여 陽氣가 不達하면 鬱하여 情志病變을 발생한다.(《靈樞·行鍼》"多陰者多怒")

또 위의 상태에 陰液이 不足하여 虛陽이 內動하면 五志를 搖亂하여 情志病變을 발생한다.

(《素問·脈解篇》"陰氣少, 陽氣入, 陰陽相搏, 故恐也.")

64) 陽氣가 有餘하면 神氣가 內動하여 善喜한다.

(《靈樞·行鍼》"多陽者多喜").

陽虛陰盛하여 陰氣가 閉鬱하면 陽氣가 不行하여

52) 宋點植, 上揭書, p.147

53) 趙憲泳, 上揭書, p.135

54) 박승영, p.148

55) 趙憲泳: 上揭書

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sup>65)</sup>.

〈表4〉 臟의 虛實과 感情의 兩面<sup>66)</sup>

|   |    |    |    |    |    |
|---|----|----|----|----|----|
|   | 心  | 肺  | 脾  | 肝  | 腎  |
| 實 | 歡喜 | 愼重 | 貪慾 | 忿怒 | 勇敢 |
| 虛 | 悲哀 | 憂愁 | 空想 | 怨恨 | 卑怯 |

위의 表4는 臟腑의 虛實에 따른 感情의 生成을 言及하였는데 모두 病理의인 狀況이다.

4. 體質과 情緒

情緒의 生成에는 先天의 體質의 素因이 強하게 作用한다.

體質에 관한 言及은 《靈樞·通天》편의 '陰陽五態人'과 〈陰陽二十五人〉篇의 二十五種人格類型<sup>67)</sup>등에 잘 설명되어 있고, 그외에 〈論勇〉篇의 勇怯과 관련한 性格, 情緒등의 內容과 〈行鍼〉의 重陽之人, 重陰之人과 〈逆順肥瘦〉篇의 肥人, 瘦人등이 있다<sup>68)</sup>. 陰陽五態人을 보면 太陰之人은 貪

情志病을 發生한다.

(《素問·脈解篇》 "所謂少氣善怒者, 陽氣不治, 陽氣不得出, 肝氣當治而未得, 故善怒")

65) 譚開濟 : 七情病辨治, 中國醫藥科學出版社, p.3-7

주 부터 까지의 內容은 모두 여기에서 再引用 된 것이다.

66) 趙憲泳, 上揭書, p.

肺와 脾의 虛實의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見解가 있다.

| 虛實 | 特 性   |
|----|---|
| 肺實 | 感情이 빠르지 않고 도량이 넓다. 일을 신중히 처리하는 사람<br>物慾이 적고 고상한 사람<br>우국지사, 이타적 감정이 풍부하다. |
| 肺虛 | 대단하지 않은 일에 까닭없이 애를 쓰고 초초해 한다.   |
| 脾實 | 속에 경륜과 야심이 가득 차고 대개 이기적 감정이 강하다.  |
| 脾虛 | 공상, 망념을 많이 한다.  |

67)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는 陰陽氣의 表現과 五行屬性의 特點에 根據하여 木, 火, 金, 土, 水 五形人으로 나누고, 다시 五行各屬의 五音의 多少, 正偏에 근거하여 진일보하여 各形人을 五個 亞形으로 나눈다. 예를들면 木音은 角이고 木形의 사람은 또 上角, 大角, 右角, 欽角, 判角으로 나누고, 그 心理特徵의 分別은 佗佗然, 遺遺然, 隨隨然, 推推然, 括括然이다. 土音은 宮이고 土形人은 上宮, 大宮, 加宮, 少宮, 左宮 5가지 亞型이며, 그 心理特徵은 敦敦然, 婉婉然, 坎坎然, 樞樞然, 兀兀然으로 分別한다.

慾이 있고 어질지 않고, 少陰之人은 慾心은 적고 해치는 마음이 있고, 남의 영화로움을 보면 화를 내고, 太陽之人은 虛荒된 이야기를 좋아하고 失敗해도 反省하지 않고, 少陽之人은 스스로 귀하다고 여기며, 陰陽和平之人은 居處가 安定되고, 對人關係에 謙遜하고 尊重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곧 陰陽和平之人은 感情이 淡薄하고 運用범위가 잘 調節되는 것으로, 後世 四象體質의 聖人의 範疇라 생각할수 있다.

앞의 表4에서 臟腑의 虛實에 따라 生成되는 感情이 다르다고 하였다. 臟腑의 虛實이 있다는 것은 氣血陰陽의 偏差가 發生하며, 따라서 臟腑의 大小에도 影響을 미칠수 있다. 四象醫學에서는 各體質別로 臟腑의 大小가 다르며, 臟腑의 大小는 情緒의 特性에 따라 決定되며, 이는 先天의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四象醫學에서는 心을 土에 놓고 勝負卷外에 配屬하였다. 金은 土는 四正中에서 作用하여 宇宙의 聖이 得位한 狀態로, 인간에 있어서도 四臟의 太過不及이 없으므로 聖人의 臟器라고 할수 있다<sup>69)</sup>고 하였다. 곧 老子의 聖人和 素問의 聖人和 四象의 聖人은 理致를 따라 行하여 臟腑가 均衡이 맞춰져 大小가 없으므로, 情志의 偏差가 원래 없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다.

〈表5〉 四象人의 情緒의 特性

|      | 太陽人              | 少陽人              | 太陰人              | 少陰人              |
|------|------------------|------------------|------------------|------------------|
| 人品臟理 | 肺大肝小             | 脾大腎小             | 肝大肺小             | 腎大脾小             |
| 人趨心慾 | 棄禮而放縱            | 棄智而飾私            | 棄義而偷逸            | 棄仁而極慾            |
| 性情   | 哀情이 遠散<br>怒情이 促急 | 怒性이 宏抱<br>哀情이 促急 | 喜性이 廣張<br>樂情이 促急 | 樂性이 深確<br>喜情이 促急 |
| 臟氣   | 哀氣는 直升<br>有暴怒深哀  | 怒氣는 橫升<br>有暴哀深怒  | 喜氣는 放降<br>有浪樂深喜  | 樂氣는 陷降<br>有浪喜深樂  |
| 性情   | 哀性이 權則<br>怒情이 動  | 怒性이 權則<br>哀情이 動  | 樂性이 權則<br>喜性이 動  | 喜性이 權則<br>樂情이 動  |
|      | 哀極 不齊則<br>忿怒激外   | 怒極 不勝則<br>哀動中    | 喜極 不服則<br>樂無厭    | 樂極 不成則<br>喜好不定   |

68) 王洪圖 總主編 : 黃帝內經研究大成(下), 北京出版社, p.2126.

69) 김영진 의 : 五行盛衰關係를 통해 살펴본 四象人 臟腑虛實과 臨床의 活用, 제14회 韓醫學會 學術논문초록집, p.6

陰人は性情이 下降하고 陽人は性情이 上升한다. 喜樂의 感性은 欲求가 解消될 때에 일어나는 感性이기에 下降하고, 哀怒의 感性은 欲求에 不滿이 있을 때 일어나는 感性이기에 上升한다. 哀는 上升이 極하여 다시 下降하는(土生金) 太陽人の 性이요, 怒는 發散하는 少陽人の 性이며(火生土), 喜는 下降이 極하여 다시 上升하는(水生木) 太陰人の 性이며, 樂은 下降하는(金生水) 少陰人の 性인 것이다.

<表6> 四象人の 臟腑大小의 原理

| 體質  | 性情               | 機轉                 | 臟腑大小 |
|-----|------------------|--------------------|------|
| 太陽人 | 哀情이 遠散<br>怒情이 促急 | 氣注肺而肺益盛<br>氣激肝而肝益削 | 肺大肝小 |
| 少陽人 | 怒性이 宏抱<br>哀情이 促急 | 氣注脾而脾益盛<br>氣激腎而腎益削 | 脾大腎小 |
| 太陰人 | 喜性이 廣張<br>樂情이 促急 | 氣注肝而肝益盛<br>氣激肺而肺益削 | 肝大肺小 |
| 少陰人 | 樂性이 深確<br>喜情이 促急 | 氣注腎而腎益盛<br>氣激脾而脾益削 | 腎大脾小 |

5. 西洋醫學에서의 情緒의 生成에 대한 見解

恐怖나 興奮같은 강한 情緒는 自律神經系가 興奮하여 빠른 心臟搏動, 呼吸, 목과 口의 乾燥, 筋肉緊張의 增加, 發汗, 사지의 떨림 및 위장에서의 허탈한 느낌들을 포함한 身體變化를 認識한다. 이것은 交感神經의 興奮으로 인한 作用으로 情緒가 사라짐에 따라 副交感系統이 일을 맡아 生體가 正常狀態로 되돌아 온다. 情緒的 興奮에 隨伴되는 身體的 變化는 自律神經系가 身體를 危急行動에 준비시키는 作用 - 싸움이나 도주를 준비해야 하는 - 이라고 볼수 있다<sup>70)</sup>. 이런 交感神經系의 興奮은 感情의 腫瘍와는 거의 武官하게 같게 나타난다. 단지 憂鬱, 悲哀등의 情緒에서 몇가지 身體의 反應이 느껴지는 作用이 있다.

心理學에서는 情緒의 成分을 ①主觀的 經驗, ②內部的 身體的 反應들, 특히 자율신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 ③어떤 특정의 긍정적 반응 또는 부정적 상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信念이나 認知的 評價, ④顔面表情, ⑤情緒의 知覺된 源泉에 대한 反應등 5가지로 認識하고 있으며, 이 5가지 요

소의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sup>71)</sup>.

그들의 관심은 神經과 情緒認識이 과연 어느정도로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래서 上升된 生理的 興奮과 어떤 情緒의 主觀的 經驗간의 關係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脊髓損傷의 程度에 따라 頸椎部 손상부터 薦骨部 손상까지 5그룹으로 나누어 實驗한 결과<sup>72)</sup> 공포, 분노, 비애 및 성적 흥분에 대해 自律神經系의 興奮의 不足은 主觀的으로 經驗된 情緒의 뚜렷한 減少를 일으켰으며, 가장 높은 脊髓部位의 損傷은 그들이 興奮되는 狀況에 대해 情緒적으로 反應할 수는 있지만, 진정하게 情緒를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였다<sup>73)</sup>.

이 사실은 韓醫學의 情 緒의 바탕에는 物質的인 것이 作用한다는 것과 關聯지어 볼수 있을 듯하다. 五臟이 각각 精을 藏하여 그것들이 精神活動의 基本物質이 되므로 精神作用에는 精과 神이 함께 作用한다는 意味와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情緒의 傳達 經路는 上部傳達과 下部傳達이 있는데 上部傳達은 視床下部와 邊緣係의 部分에서 大腦皮質로 傳達되어 刺戟을 認識하는 것이고, 腦幹에 있는 神經核으로 傳達되어 筋肉과 內部기관에 직접 作用하거나 腦下垂體에 전달되어 부신흔르몬등에 간접 작용하는 機轉이 있다.

III. 結 論

1. 感情은 先天的으로 生得的이며, 人間의 認識이 不完全하므로 感覺또한 主觀的이고 不完全하고 個人的인 偏差가 存在한다.
2. “心神”은 喜로 인해 動할 뿐만 아니라, 其他性質의 精神刺戟도 또한 모두 心에 먼저 作用하고

71) 다른 성분들이 어떤 정서의 주관적 경험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등

72) 경추부 손상은 부교감 신경계만 온전하고 교감신경의 작용은 없으며, 천골부손상은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최소한의 부분적 지배는 있다. 절단 부위가 높을수록 뇌에 대한 자율신경계통의 피드백은 적다.

73) Jasmao와 Hakmiller, 1975, 심리학개론, p.477에서 재인용

70) 홍대식, 심리학개론, p.473

各 臟腑의 作用이 따른다. 따라서 韓醫學에서는 感情을 心身이 主管하고, 五臟으로 發現된다고 認識하고 있다.

3. 感情은 外的인 刺戟에 의해 發生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個體 내부 條件으로 이에 따라 強度와 持續이 다르게 나타나며, 內部條件은 氣, 血, 陰, 陽, 神등이다.

4. 臟腑의 虛實과 臟腑의 大小에 따라 生成되는 情緒가 다르며, 四象醫學에서는 각 體質別로 臟腑의 大小가 다르며, 臟腑의 大小는 情緒의 特性에 따라 決定되며, 이는 先天的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 參考文獻

1. 譚開清 : 七情病辨治, 中國醫藥科學出版社, 1998.
2. 홍대식 역 : 심리학개론 제9판, 養英閣, 1993.
3. 全國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篇: 東醫病理學, 中社, 1999.
4. 嚴泰植 : 七情傷에 對한 小考, 大韓韓醫學會誌 제5권 제1호.
5. 王克權 : 中醫神主學說, 의성당, 1997.
6.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p.484, 494.
7. 엄영웅 : 노자, 삼성출판사.
8. 宋點植 撰 : 醫學輯要, 대경문화사.
9. 邱幸凡 : 從《內經》看情志與人體健康和疾病的關係, 복건중의약, 82년 5월, 1982.
10. 宋鸞冰 外 : 中醫病因病機學, 서울, 일중사, 1983.